

“3년 성과 바탕으로 ‘장성 전성시대’ 열겠다”

민선 8기 3년

김한중 장성군수

김한중 장성군수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인구, 균형발전, 안전, 관광, 경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장성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민선 8기 3주년 정례조회에서 “지난 3년간 장성의 미래를 위해 십양이 달려왔다”며 군정을 견인할 주요 성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확정, 고려시멘트공장 가동 중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장성 원더랜드’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인구문제 대응과 관련해 “해법은 일자리와 사람의 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9년 완공 예정인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약 1만25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광주첨단3지구 조성사업과 장성파인데이터센터, 나노기술제2산단

인구·관광 등 5개 분야 전략화 “일자리·사람성장” 소멸 해법도

등도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보육·교육 분야에선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서부권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초중고 입학축하금, 청소년수당,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두터운 교육복지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마련한다.

11개 읍·면의 균형발전도 군정 핵심과제다. 김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428억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북이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체류형센터 구축,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농기계임



김한중 장성군수.

대 남부본소 운영 등 지역 간 고른 성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외형적 개발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였다.

이와 함께 황룡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신규 소각시설 설치 등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축이다. 장성군은 오는 10월 황룡강 가을꽃 축제와 마을단위 축제, ‘장성 방문의 해’ 운영 등으로 관광수요를 이끌고, 장성호 제3출렁다리과 축령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에도 나선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 발행과 관광-소비 연계를 통해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파크골프장과 실내체육관, 장성호 체육시설 확대 등 생활체육 기반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군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며 “남은 임기에도 군민과 함께 더 큰 성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올해의 책 독후감 전국 공모전’ 영암군, 7일부터 접수

전라남도 영암군이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 영암군 올해의 책 독후감 및 독후화 전국 공모전’ 참여 작품을 접수한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제1회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영암군 독서문화를 알리고 책을 매개로 전국 독서가들과 교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암군의 각 분야 올해의 책은 어린이 분야·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청소년 분야·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일반 분야·아버지의 해방일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등이다.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은 독후화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독후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초등학생은 어린이 분야,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분야, 대학생 이상은 일반 분야 도서 1권을 선택해 작품을 내야 한다.

공모전 접수는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독후화, 독후감 초등·중고등·일반 4분야로 나눠 총 24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1명에 20만원, 우수상 2명에 10만원, 장려상 3명에 5만 원을 상금으로 준다.

수상작은 영암군홈페이지에서 10일간 공개 검증을 거쳐 공정성·적합성을 확보한 다음, 최종 확정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11월24일 확정해 영암군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되며 수상자는 12월1일에 개최되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화순군 ‘장애인 건강증진 운동교실’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

전라남도 화순군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몸도 쟁기GO, 맘도 쟁기GO 운동 교실’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동 교실은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참여자 간의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여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한 달간 화순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회씩,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소도구(굿볼, 탄력밴드, 폼롤러 등)를 이용한 균형 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 관절 및 근육 통증 조절을 위한 테이핑 교육 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보건소(061-379-5309)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최근 나주시 공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공산면협의체, 취약가구 주거환경정비 활동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홀로 사는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정비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3일 나주시 공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청소봉사는 공산면 맞춤형 복지팀, 공산면 지사협 위원, 생활개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주택 내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기들을 정리해 대상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주거환경정비 청소봉사 ‘클린하우스 데이’는 공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민·관이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치는 사업이다.

오길성 민간위원장은 “더운 날씨에 이웃을 위한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에 함께

해준 위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나관승 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어 감사하다”며 “돌봄과 봉사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산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확정’ 대법원, 집행정지 요청 ‘최종 기각’

전라남도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선정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효력 정지 요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에 따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제4조를 근거로 삼아 기각 사유는 ‘이유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가 지난해 내린 입지 결정 및 고시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본안에 해당하는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으로 오는 8월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신속 재정 집행...나주시, 전남 시 단위 실적 ‘1위’

집행률 61.2%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남 시 단위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가 신속집행 분야에서 시단위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연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에는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민

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나주시의 신속집행 실적은 집행 대상액 4876억원 중 2986억원 집행하면서 집행률 61.2%로 집계됐다. 이는 행정안전부 목표(2670억원)를 316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로 전남 전체 4위이자 시 단위 중 1위에 해당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지역경제와 시민 삶에 밀접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 집행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월, 주, 일 단위로 사업별 집행률을 정밀 점검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빠르게 집행한 점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경제 활력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HD현대삼호, 조선산업 로봇 개발 독이노이라와 공동 업무협약

HD현대삼호와 HD현대로보틱스가 독일의 인간형 로봇 전문기업 노이로라 로보틱스와 손잡고 조선산업 현장에 특화된 4족 보행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최근 독일 뮌헨에서 HD현대로보틱스, 노이로라 로보틱스와 함께 ‘조선산업 인숍(In-shop) 4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소 내 용접 작업에 활용 가능한 4족 보행 형태의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공동 개발하고, 실제 조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삼호는 협동로봇과 자동화 장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HD현대로보틱스는 용접 자동화 관련 경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로봇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

노이로라 로보틱스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4NE-1’ 등 기존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조선산업용 휴머노이드의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